

「오르트」교수와 과학정년



閔 英 基
〈경희대 교수〉

목요일 오후 3시는 화란 라이덴(Leiden)대학 천문학과와 콜로키움(Colloquium)이 열리는 시간이다. 3시5분전이면 항상 콜로키움 장소의 맨 앞 자리에 좌정하는 노인이 한분 계시다. 그분의 성함은 오르트(J.H.Oort). 1900년 4월생이니까 이제 연세가 만 90세하고도 5개월 되신 분이다. 물론 그분의 노안에는 주름과 노인 특유의 반점이 덮여있고 눈은 충혈된 모습으로 힘이 없어 보인다. 머리에는 흰 머리털이 몇개 남아 있을 뿐이고 목과 허리는 이미 굽어져서 앞을 주시하는 모습은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할 정도이다. 지팡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걸음걸이는 마치 돌지 난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다.

그런데 라이덴대학에서 콜로키움을 하는 스피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노인이다. 대부분 세계적인 석학들이 발표하는 자리이지만 아직도 왕성한 연구욕과 관심, 그리고 논리정연한 어조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누구나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가답게 이 노인은 천문학의 여러 분야에 박식할 뿐 아니라 카랑카랑한 목소리와 빠른 두뇌 회전은 30대 혹은 40대의 한

참 일할 나이의 정력을 잃지 않고 있어 모든 사람의 존경어린 눈초리를 듬뿍 받고 있기도 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오르트라는 한 대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한 나이에 관계없이 학문을 계속 하고 학문하는 분위기속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는 그곳의 분위기가 하도 부러워서이다.

오르트하면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이름이 소개될 정도로 잘 알려진 분이다. 그는 이미 20대에 당시 까지만 해도 알려지지 않고 있던 태양이 속한 우리 은하계(이는 밤하늘에 은하수로 나타남)의 모습을 알아낸 인물이다.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에 속한 2천억여개의 별중에 하나로 은하계 속에 박혀있고, 별과 별사이의 작은 먼지 입자들이 먼데서 오는 별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은하계속의 별 분포를 알 수 없었다. 이는 마치 큰 건물의 지하실 방속에서 그 건물의 모습을 알아내려는 노력에 비유되고 있었다. 그는 이미 1951년에 은하계 안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중성 수소에서 나오는 파장 21cm의 전파를 포착하여 은하계의 모습과

그 속에서의 태양 위치를 알아내어 천문학계에 위대한 발견을 안겨주었다.

오르트(Ort)는 그 후 천문학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업적을 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혜성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헬리(Halley)와 같이 긴 꼬리를 달고 종종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우주의 신비로움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혜성의 기원을 그가 밝혀낸 것이다. 수십년전에 발표된 그의 이론에 의하면 태양계는 혜성 물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물질들이 태양의 인력에 끌려서 태양에 접근하면 혜성이 된다는 것이다. 이 오래된 이론이 지금도 각광을 받는 것은 최근 여러대의 우주선이 혜성을 직접 탐사한 결과 그의 이 오래전 이론이 관측 사실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왕성한 그의 연구의욕은 나이에 굴하지 않고 90세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나이로만 따지면 증손자 또는 고손자에 해당하는 젊은 학자들과 아무 간격없이 토론을 벌이면서 매년 수편씩의 논문을 써내고 있다. 지난 여름 이 노학자를 대하면서 나는 참으로 느낀 것이 많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누를 수가 없었다.

이제 겨우 50을 조금 넘긴 나이에 나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부리려하고 있으니 말이다. 실제로 눈은 어두어져서 안경은 두개를 써야 하고 몸은 말을 잘 안듣고 쉬 피로하고 등등 나의 연구의욕을 잃게 하는 요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나는 이제 연구에 몰두할 나이가 지났어. 연구는 젊을때 하는거야.』 이것은 최근 내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인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터 시작하여 지난 30여년간 온갖 고초를 겪고 희열을 맛보면서 몰두하던 학문을 그리도 쉽게 내어버릴 생각을 하다니…….

조기 은퇴는 비단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노인 아닌 노인을 양산하고 있다. 물론 인구가 많고 우수한 젊은이가 많이 배출되니까 그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나이들면 물러나긴 해야 하겠지만 오십 몇세의 정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다.

또한 심각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과 동시에 자기가 평생에 종사하던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버리는 것이다. 과학계에서도 경력과 능력으로 보아서 수십년은 더 학문에 공헌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정년과 더불어 학계를 영원히 떠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외국에서는 학술회의에서 대체로 60대 또는 70대의 노학자들이 회의를 이끌면서 젊은 학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또 그 곳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한 정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도 하다. 정년후에도 연구실을 그대로 쓸 수 있음은 물론, 연구비와 학생도 배정하고 심지어는 비서까지 두게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명예교수 제도가 있어 표면상으로는 연구와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사회적인 여건이 정년 훨씬 전에 이미 연구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정년에 관계없이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자기가 평생 몰두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문하는 세계의 나이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특유의 나이에 따른 권위의식도 없어져야 하고 학문의 최첨단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나친 자부심도 젊은 학자들에게서 없어져야 한다. 학문하는 세계에서는 학문이 앞서야 하고 누구나 배우려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학교나 연구에서도 정년학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 외국대학의 경우 과학의 기초과목은 강의원로교수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그것은 그들의 폭넓은 학문적 배경과 경험만이 새로 입문하는 과학도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연구에서 세대가 없어지고 정년이 없어지는 분위기가 될 때 우리의 과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